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0년 10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월 20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0. 19(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
담당과장	송주호 과장 (044-203-5660)	담 당 자	전우표 사무관(044-203-5665)

동유럽 4개국(V4)과 친환경 이동수단 협력 추진

- 경제통상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-
- 국제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협력 기반 구축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유럽의 핵심 생산거점**으로 **우리기업 진출**이 **활발**하고, **코로나19**에 따른 **국제 공급망 재편**으로 더욱 **중요**해진 **동유럽 4개국(V4)과 경제협력**을 **강화**하기 위해,

○ **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**로 **대한상의, 진출 주요기업, 지원기관, 지역 전문가 등**으로 구성된 **「V4 플러스 경제통상 포럼」**을 **발족**하였음

※ V4 플러스 : V4('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(Visegrad) 에서 결성된 4개국(폴란드·체코·헝가리·슬로바키아) 협의체) + 인접 국가

【 「V4 플러스 경제통상 포럼」 제1차 회의 개요 】

- 일 시 : '20.10.20(화), 15:00 ~ 16:50
- 장 소 :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
- 참 석 : (정부) 산업부 통상차관보(주재)
  (대한상의) 상근부회장
  (기업) 현대차그룹, LG화학, 삼성SDI, 포스코, 삼성전자, 두산밥캣, 효성첨단소재
  (기관 및 지역전문가) 코트라, 산업기술진흥원, 무역보험공사 등
- 주제 : 한국-V4 플러스 지역간 친환경 이동수단 협력

○ V4 지역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**지리적 이점**과 **우수한 인적자원** 등으로 **유럽연합(EU)**에 **편입**된 후 **유럽의 공장**으로 부상하였으며,

○ 이러한 **이점**으로 **우리 기업**들도 **V4 진출**을 **확대**하였고, 특히 최근 몇 년간은 **유럽의 친환경 정책** 등에 힘입어 **전기차 배터리 생산**을 위한 **투자**를 **활성화**되는 등 **우호적 경제협력 관계**를 지속한 결과, **코로나19** 여건에서도 **올해 양측 교역**은 **오히려** 작년보다 **증가**하였음

* 최근 4년간('16~'19) 대(對)V4 투자

- 헝가리 14억 달러(총 누계 중, 최근 4년간 차지비중 71%) ☞ '19년 對헝 투자 1위 한국, 폴란드 20억 달러 (51%), 체코 5억 달러 (25%), 슬로바키아 1.3억 달러 (9%)

* '20.1~8월 한국-V4 교역은 99.7억 달러로, 전년 동기대비 4.5%↑

<V4 자동차 및 전기차배터리 관련 진출 현황>

국가	분야	주요 진출현황
폴란드	전기차배터리	ㅇ LG화학, '16년 진출 - LG화학 전기차배터리 물량의 절반 이상 제조 - VW, Audi, Renault, Volvo 등 유럽 주요사 공급
체코	자동차	ㅇ 현대자동차, '07년 진출 - '19년 30만대 이상 생산, 3,200여명 고용
헝가리	전기차배터리	ㅇ 삼성SDI, '17년 진출 - '19.11, BMW社와 장기 공급계약('21~'31년, 약 29억유로) 체결 - 현재 1공장 가동, 2공장 투자 검토 중 ㅇ SK 이노베이션, '18년 진출 - 현재 1공장 가동, 2공장 건설 중
슬로바키아	자동차	ㅇ 기아자동차, '04년 진출 - '19년 34만대 이상 생산, 3,600여명 고용

* 출처 : 코트라, 대한상의 등

□ **박 차관보**는 **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**이 **안정성 위주로 재편**되어 유럽에서 **V4** 국가들의 **투자매력**은 더욱 높아지고 양측간 경제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,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 **사업적 측면**에서 **경제협력 증진**을 모색하고 양측 기업의 **애로사항**도 적극 **해소**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함

*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지역가치사슬(RVC) / 국가가치사슬(NVC) 방향
- (단기) 제한된 분야(보건산업 등) 중심, 자국 · 지역 중심 복귀
- (중장기) '적시 공급'(Just in time) → '위험 분산'(Just in case)으로 안정성 추구

○ 향후 양측간 경제협력이 **더 많은 성과**를 거두려면 **최근 경제성장 핵심어**인 **'그린'과 '디지털'**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, 그린·디지털 중심의 **한국판 뉴딜**을 추진하는 한국과 **인공지능(AI), 5세대 이동통신(5G)** 등 **첨단산업** 육성에 힘쓰는 V4 지역은 **협력 잠재력**이 **풍부**하다고 평가함

□ 산업부는 이런 맥락에서,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**전기차·수소차 등 한국의 미래차 산업 육성**과 **EU의 친환경 정책**에서 양국간 사업 **협력**을 **모색**하기 위해 **1차 회의 주제**를 **'친환경 이동수단'** 분야로 선정하였음

○ 이 **포럼**을 **활성화**하여 **우리기업의 현지 경영 활동**을 적극 **지원**하고 **협력 과제**를 **발굴**하는 등 **양측간 협력**이 **심화**되도록 노력해 나갈 **계획**임

□ 끝으로, 박 차관보는 **세계무역기구(WTO) 차기 사무총장 선출**과 관련하여, **한국과 V4**가 **자유롭고 공정한 개방경제**로 **성장**을 이룩해 온 **공통점**을 언급하며,

○ **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 복원**에 요구되는 **통상 전문성과 강한 리더십**을 모두 갖춘 **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**을 **지지**해 줄 것을 **주한 V4 대사**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전우표 사무관(☎ 044-203-56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